

알파 & 베타 세대의 특징



**알파세대는
아주 어릴때부터
숨쉬듯 기술에 정통한
디지털 네이티브**

베타세대는 AI 네이티브





시각적 (visual)이고 Interactive한 콘텐츠 선호

틱톡, 인스타릴스, 유튜브 숏츠와 같은 숏폼 영상 화법에 익숙함.

그래서 길고 복잡하기보다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영상을 통한 소통을 선호 (사진, 영상편집에 익숙).

유튜브와 게임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친구와의 소통을 꾀함

책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읽기 싫다는 반응

부모들의 이야기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갈등 경험을 호소.

대부분 자녀들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이용하거나 부모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초래된다고 응답.

아이들의 이야기

부모의 재제에 대하여 어떤 아이는 화가 난다고 했고 어떤 아이는 수긍하는 경우도 있었음.

초등학생 자녀는 대체로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더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함.

알파세대의 특징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인내심이 부족. 디지털 기기를 빼앗길 때 분노 표현

- 취학전 유아의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좌절 표현이 증가하고 (특히 남아), 분노·좌절 표현이 증가하면 다시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 대학 연구팀, 의학저널 JAMA 소아과학(JAMA Pediatrics)





육아가 힘들어서 스마트폰을 아이의 손에 쥐어준 순간부터, 아이들에게는 이미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어느 순간부터 갈등의 씨앗이 되는 순간이 많아졌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물건이 아닌, 내 아이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생각을 전환하면 어떨까요?



내 아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열심히 보고 나서 스스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자녀의 관심과 감정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

시청한 내용을 다시 사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대화.

알파세대의 친구 관계

1. 메타버스, 게임,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만듦.
소셜 미디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음.

--부모님이 자녀들의 친구들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지고, 온라인 친구들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움

2.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는 일이 더 재미있고 편안함. 쌍방향 소통보다 수동적인 시청에 익숙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이를 시도해 보지만, 규칙은 귀찮고, 대화는 불편함.

-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염려

3.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원하는 말을 해주는 AI와 친밀감 느낌





아이의 사회성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함께 놀면서, 놀이의 규칙을 지키며
어울리고 참고 양보하고 때로 다투기도 하며
조금씩 둥글어지며
사회성을 발전시킬 나이의 아이들 사이에
소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공감, 소통, 사랑의 중요성

"과거의 직업이 '근육'과 관계가 있었다면, 요즘의 직업은 '두뇌'와 관계가 있다.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 미노체 샤피크, 런던 정치경제학교 학장



미래 직업의 핵심이 될 '심장'의 의미는 공감과 소통

— 부모의 역할이 중요!

개인화 추구

자신의 선호도와 신념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디지털 세대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같은 감정을 자기 주도적 공부를 통해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함.



인생 첫 말이 "알렉사"

영국에서 생후 18개월 아기가 처음 한 말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알렉사!"

알렉사는 아마존이 개발한 AI 스피커의
이름.

AI에게 인간성을 부여하며 친밀감을 가짐



알파세대는 인공지능을 인간화하고 애착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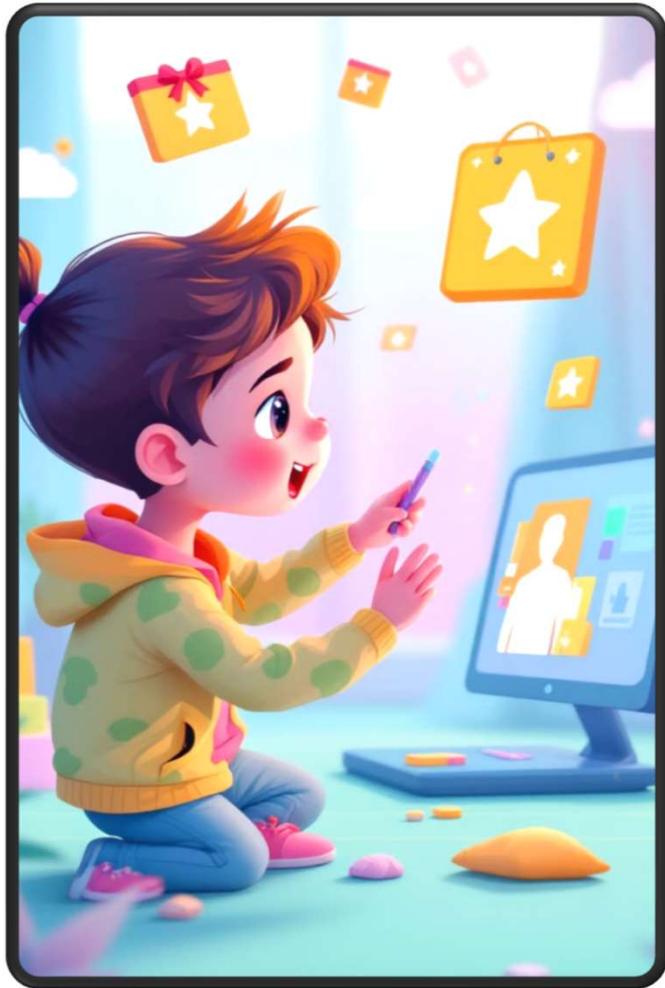
- 이전 세대는 모르면 엄마, 아빠, 선생님께 물어보았고, 잠자기 전 책읽기도 부모님께 요청했지만, 알파세대는 AI에게 물어보고, 대화하고, 요청하면서 인간처럼 느끼고 애착을 느낌.
- 주의할 것은 은밀하게 교육되는 차별과 편견, 혐오의 문제 - AI가 학습한 사회, 문화의 영향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기 더 어려운 세대

가정예배의 중요성,

부모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결, 떠오르는 소비자 세대

- 알파세대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만들어 가고,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험을 현실과 동일시 함.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제작자.
- 이전 세대들과 달리, 이른 나이에 이미 경제시장에서 주목하는 소비자인 알파세대.
- "알파세대 소비패턴, 이렇게 공략하세요"
이런 글들이 웹상에 많이 올라옴
- 맘모니즘, 물질주의 사회에서, 보살핌의 대상이 아닌 소비자로 이용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지도하기.

알파세대의 낮은 문해력 문제

문해력 (Literacy: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글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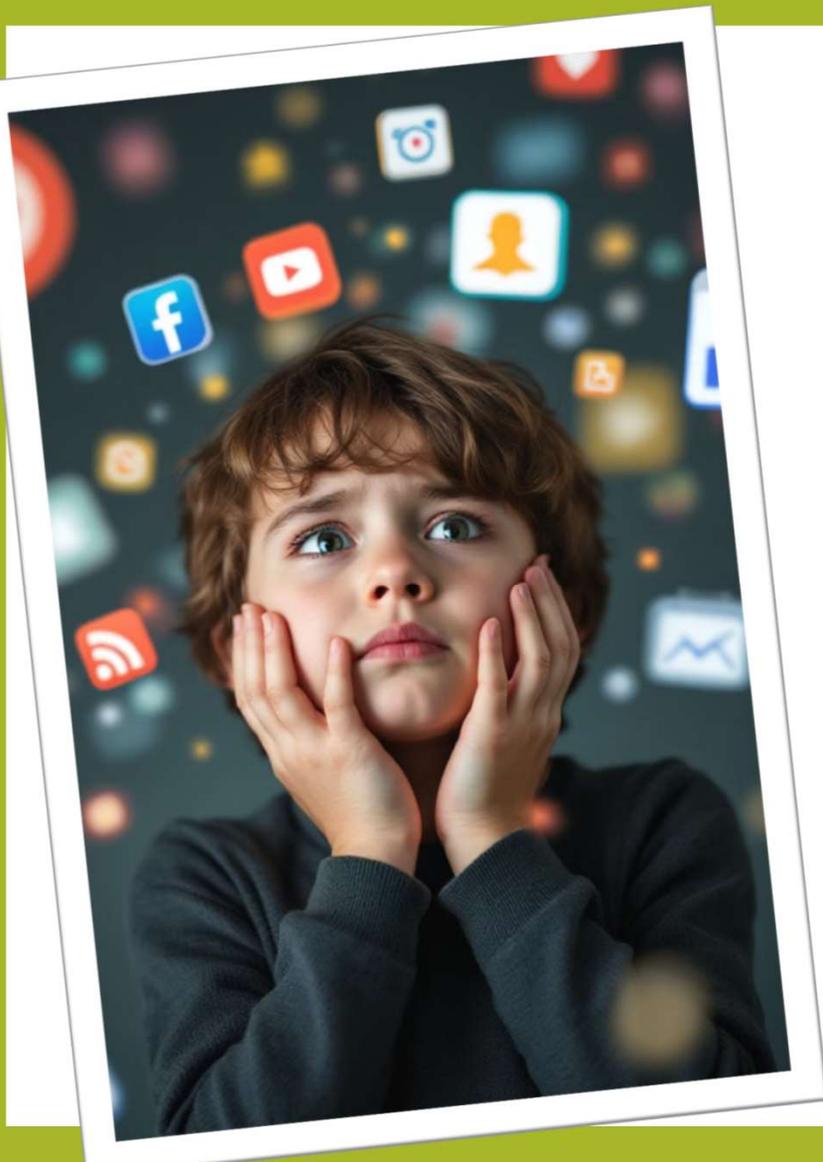
보고 듣기만 하면 저절로 이해되는 영상,
또한 조금만 지루해도 다른 영상을 보는데 익숙해진 뇌는,
글을 읽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 함.



문해력 발달의 중요성

안타까운 점은 유년기에 일정 수준까지 만들지 못한 문해력은 어른이 되어도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어린시절의 독서와 사고, 토론이 더욱 필요 - AI 시대의 부모님의 역할은 literacy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자신에 대한 이해는 비완성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

알파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와 자신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이기 쉬움. 무수한 비교 상황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것부터가 힘든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음.

비교 대상이 많고 기준이 광범위한 만큼,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는 교육이 중요.

뇌가 단기간의 쾌락에 너무 자주 노출되어 중독과 우울증에 빠지는 위험

2020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실태를 조사한 질적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유튜브 시청(1위)과 모바일 게임(2위)임이 보고됨.

또한 초등학생의 미디어 이용 시간 및 이용 행태는 부모-자녀간의 유대감, 자녀의 오프라인 활동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함.

또한 부모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음.

- 자녀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 부모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등 특정 미디어의 집착 경향성도 낮아졌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딥페이크

-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을 접했을 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
- 신앙 윤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판단과 선택의 근거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
- 성 착취물 제작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딥페이크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
- AI 윤리교육을 통해,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은 AI가 아니라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다른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함.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혼재



Broken Families 증가

이혼율 증가, 재혼 증가
복잡해 지는 가족 구성



비혼주의 증가

비혼주의를 선포하고
개인적인 삶을 영위

비혼출산



동성 부부 가정

입양이나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가짐.



차별금지법



모든 신념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차별하면 안된다

—> 기존에 믿어지던 진리, 신념을
주장할 때 역차별 문제 발생

심각한 기후문제와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



"(이대로라면)

2040년 이전에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올라갈 수 있으며,
2100년에는 (1.5도나 2.0도가 아니라) 3.2도
이상 오를 수 있다"

- 2023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제6차 종합보고서 내용

MAR 19, 2019 BARNA GROUP

“WHO IS RESPONSIBLE FOR CHILDREN'S FAITH FORMATION?”

어린이의 신앙 형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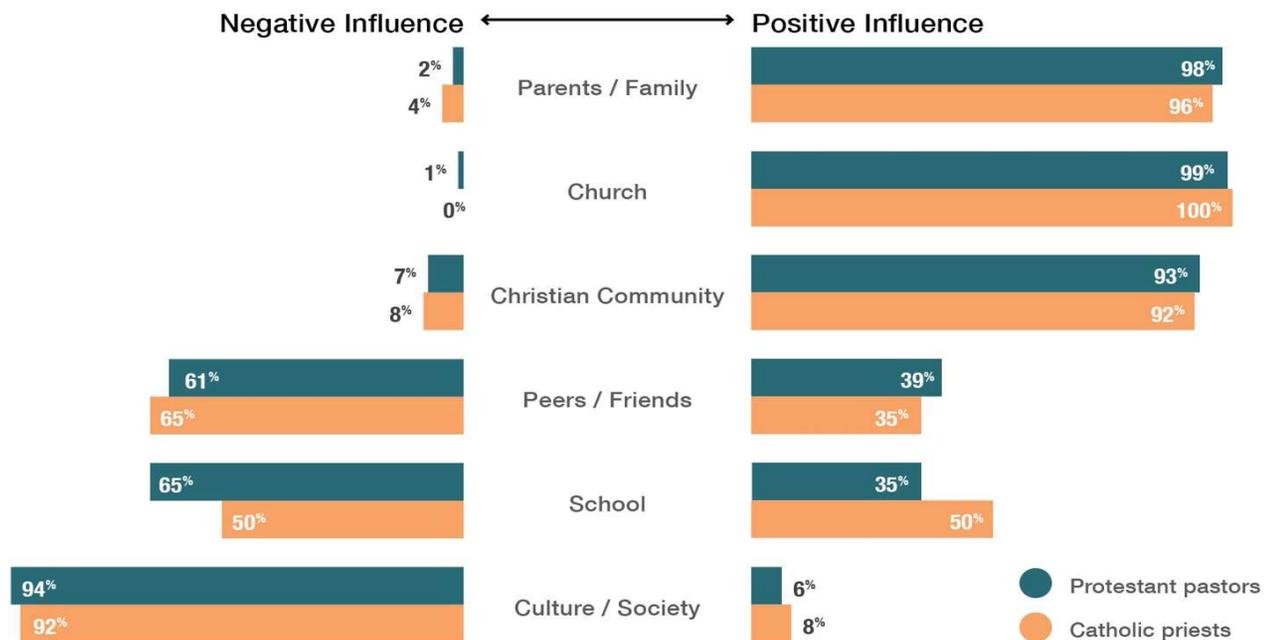
- 바나 그룹 (크리스찬 리서치 그룹)이 2018년 650명의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리더들과 인터뷰
(연구결과 보고서 – 2019년 발표)

아이들의 신앙형성에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ON A CHILD'S SPIRITUAL FORMATION

Barna

Would you describe these influences as positive or negative to a child's spiritual formation and development?



CHILDREN'S MINISTRY STATISTICS (2019 & 2022)

"HOW DO KIDS COME TO CHRIST?"

아이들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아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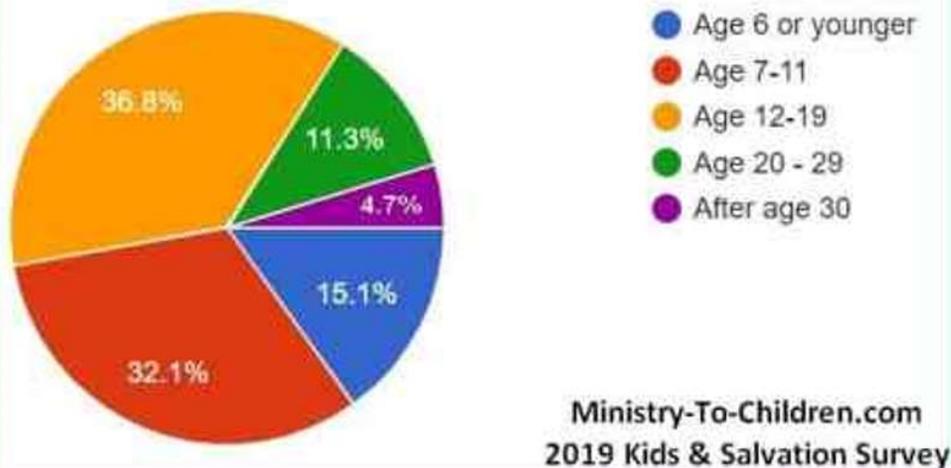
- Ministry to Children 단체가
- 2019년 전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 2019년 400명 & 2022년 1,200 명의 어린이 사역 리더들에게 설문조사한 연구결과



FINDING #1 CHILDHOOD IS WHEN MOST PEOPLE FIND JESUS.

발견 1: 대부분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어린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At what age did you accept Christ?



→ 교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른들이 연구 대상

- 기독교인의 84%가 18세 이전에 신앙을 갖게 됨.
- 47%는 12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음
- 현재 신자의 1/5 미만의 수만 19세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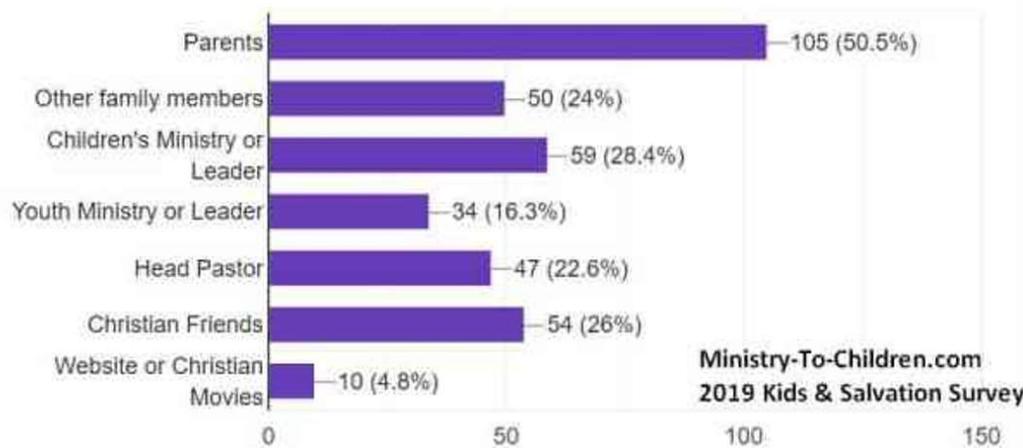
다른 연구들은 교회출석에 상관없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샘플이었기에, 이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들과 매우 다름

FINDING #2 PARENTS (AND FAMILY) HAVE THE MOST IMPACT

발견 2: 다음세대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Who helped you come to Christ? (check all that apply)

208 responses



그러므로 부모님이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 참여자의 50%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부모님이었다고 말함
- 다른 리서치의 첫번째 발견 역시, 다음세대의 신앙 결실에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가진다는 것. (Lifelong Faith)
- 24%의 참여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함

MAY 7, 2019 BARNA GROUP
"THE POWERFUL INFLUENCE OF MOMS
IN CHRISTIANS' HOUSEHOLDS"

기독교인 가정에서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



- Barna Group이 활발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양한 인종과 형태의 가족구성원들을 심층 인터뷰 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 온라인 서베이를 실행, 그 중에서
- 13-17세의 자녀를 가진 448명에 대한 연구 결과들

FINDING #1 MOMS ARE PRIMARY ACTIVITY & CONVERSATION PARTNERS FOR TEENS.

발견 1: (청소년) 자녀의 주요활동과 대화의 동반자로 발견된 엄마

- ✓ 오늘날의 크리스천 청소년은 거의 모든 활동에서 어머니를 자신들과 함께하는 주요 가족 구성원으로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 ✓ 함께 식사하기(85%), TV나 영화 보기(81%),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70%), 대화하기(63%)**에 이르기까지 10대 자녀의 주요 활동 파트너는 어머니입니다.
- ✓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어머니 69% vs. 친구 73%) 전화를 걸 때(어머니 61% vs. 친구 71%)에도 친구 관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FINDING #2 MOMS ARE PRIMARY ACTIVITY & CONVERSATION PARTNERS FOR TEENS.

발견 2: 십대들은 힘든 대화 주제가 있을 때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때 엄마를 찾습니다

- ✓ 크리스천 십대들은 조언(78%), 격려(75%), 동정(72%) 등 모든 종류의 심리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Z세대의 68%가 가장 최근의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곁에 있어 준 사람이 엄마라고 답했습니다.
- ✓ 한편, 아버지는 돈(74%)과 물질적 도움(63%)에 대한 십대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어머니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주로 신앙 문제(72%)나 성경(71%), 그리고 고민이 될 만한 일(78%)에 대해 어머니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NDING #3 MOTHERS ARE THE MAIN SPIRITUAL COACHES FOR TEENS.

발견 3: 청소년의 주요한 영적 코치로서의 엄마

- ✓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영적인 지도와 교육을 제공하고, 가정에서 신앙의 가치와 규율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일관되게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 ✓ 어머니는 기도(63%)와 하나님(70%), 성경(71%), 기타 신앙 관련 질문(72%)에 관한 대화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 ✓ 이는 수년에 걸친 Barna 연구들의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 ✓ 또한 어머니는 교회 출석을 독려하고(79%) 자녀에게 성경(66%), 하나님의 용서(66%), 종교적 전통(72%)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활발한 가정을 만드는 요인들

“가족모임을 가져요” (68%)

“일상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유해요.” (59%)

“가족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 해줘요”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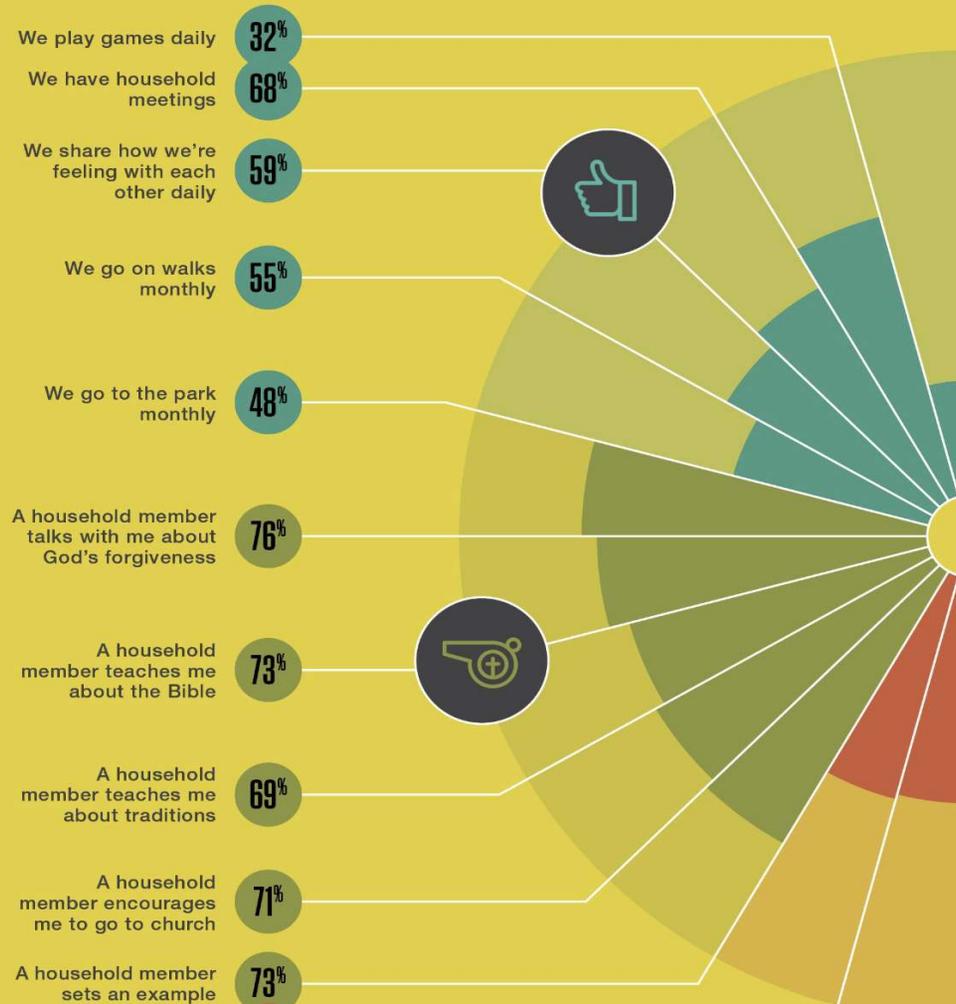
“가족이 성경에 대해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요” (73%)

“신앙적인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가족구성원이 있어요” (73%)

WHAT MAKES FOR A VIBRANT HOUSEHOLD? (Part 1)

Bar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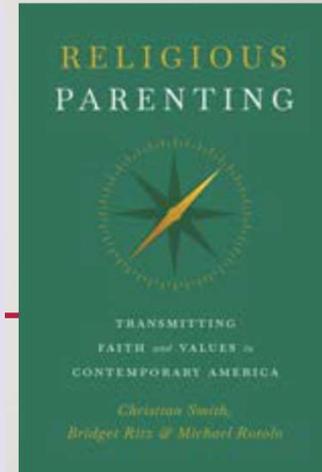
● Spends fun, quality time together ● A spiritual coach is present ● Welcomes others



"저희는 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신앙 실천이, 가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교훈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실천 중심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의 실천을 함으로써 모델이 되는 것이 기본이고, 신앙 체계를 설명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SMITH, C., RITZ, B., & ROTOLO, M. (2020). RELIGIOUS PARENTING: TRANSMITTING FAITH AND VALUES IN CONTEMPORARY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민한인가정에서 의사 소통이 어려운 이유



- 이민이라는 조건에 맞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이민 1세의 바쁜 일상 – 자녀의 미래, 성공을 위한 노력이 현재 자녀와의 일상보다 우선됨
-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와 존중보다 걱정과 염려로 받아들이는 부모.
- 문화의 차이는 대화 방식과 이해에도 영향을 미쳐서 갈등이 발생.
- 정체성의 차이: 1세와 1.5세는 한국인 정체성 가지지만 2세는 맥락에 따라 변함.
- 언어적 장벽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움
- 소통방식의 차이 –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활용면에서의 차이
- 자녀의 관심사, 고민, 불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기대는 높음

우리안에 있는 '부모됨의 신화'

부모됨에 대한 우리의 신념(1)

출처-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강의실

http://www.mogef.go.kr/kps/pec/kps_pec_s001d.do?mid=mda777&bbtSn=706096

〔엄마아빠가 모두 해 줄게〕



"부모는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해 자녀를 보호 할 임무가 있다"

부모는 만능 파워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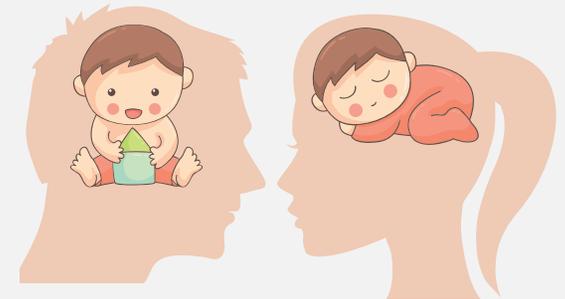
〔성인이 되어도 함께, 캥거루족〕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낌없이 희생하는 부모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아〕



"<내 안에 너 있다> 부모의 뇌 속에 아이가 산다"

부모는 아이와 일심동체

우리안에 있는 부모됨의 신화

부모됨에 대한 우리의 신념(2)

부모는 저절로 된다



“부성과 모성은 선천적이다”

“내가 부모인데
누가 뭐라고 하나”

부모는 감독관, 매니저



“자녀의 성공은
부모하기 나름이다”

“자, 뭘 준비 되었니?
사교육 시장으로 출발!”

일차적 책임은 부모



“부모와의 애착만이
중요하다”

“부모가 힘들어 한 것도
미안하다”

부모됨의 신화 뒤집어 보기

잘못된 신념 뒤집어 보기(1)



부모는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해 자녀를 보호 할 임무가 있다

정답이 없는 부모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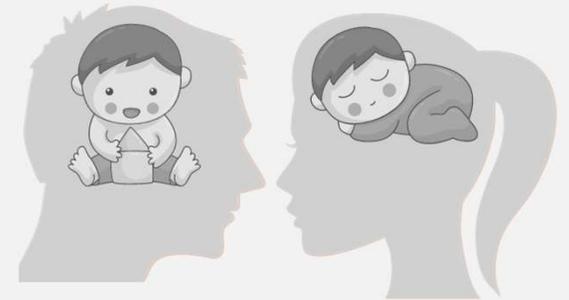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낌없이 기다리는 부모

“너의 소리에 귀 기울일게”



<내 안에 너 있다>
부모의 뇌 속에 아이가 산다

부모와 아이는 동상이몽

“너와 나는 다르구나!
네 생각은 무엇이니?”

부모됨의 신화 뒤집어보기
잘못된 신념 뒤집어 보기(2)



“생물학적 부모라면
저절로 부성애와 모성애가 생긴다”

누구나 부모는 아니다

좋은 부모는
경험하며 만들어지는 것



“자녀의 성공은
부모하기 나름이다”

부모는 정원사

양분과 양질의 환경을 조력



“엄마와의 애착만이
중요하다”

아이는 함께 키운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부모의 역할



뒤에서 도와주는 존재



앞에서 이끄는 존재



함께 가는 존재

출처-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강의실

http://www.mogef.go.kr/kps/pec/kps_pec_s001d.do?mid=mda777&bbtSn=706096

FAMILY
CONVERSATION
KIT 사용법





우리 가족 대화 가이드의 목적 및 사용법

이 가이드는 가족 간의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화 가이드 디자인 배경

부모님의 입장:

이런 부모님의 고민을 반영하여 만들었어요.

-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 의미 있는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지?
- 너무 깊고 심각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하지?
-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면?
- 대화를 하다가 내가 잔소리만 하다가 끝나진 않을까?
- 평상시 우리의 대화와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맞나?
- 어떻게 해야 좀 더 폭넓고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이의 입장: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 엄마 아빠는 나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Do they understand me?
-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 What do I know about them?
- 혼나지 않고 내 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 Can I really tell them everything?
- 엄마아빠와 얘기하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을까?
- 나는 커서도 엄마 아빠에게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까?
-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목적 1: Getting to Know Each Other (좀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며 건강한 관계와 소통의 바탕이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작용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대화인가요, 지시인가요?
"숙제했니? 방 정리했어? 음식 좀 골고루 먹어."

한 방향으로 지도와 훈육을 하는 내용이 아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화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이 대화 가이드의 가장 첫번째 목적입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여 집중하는 시간과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단계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누는 기회

나는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연습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길 원합니다.

목적 2: Expanding the Scope of Conversation (좀 더 넓은 대화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넘어서는 폭 넓은 주제의 대화를 경험하기 위해



매일 하는 말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

여러 가지 대화 주제를 통해서 평상시에 잘 이야기 해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부모님도, 아동들도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세요.



폭넓고 깊은 대화를 위한 준비와 연습

아동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양질의 대화가 이어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 대화 시간이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민감한 시기에 갑자기 준비없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양한 대화 주제를 다룸으로써 청소년기에 마주치는 중요한 주제들도 많은 주제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다루어지길 원합니다.



목적3: Enhancing Communication Skills (좀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대화의 기술과 소통의 방법을 연습하고 익히기 위해

1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

대화 가이드의 질문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 가이드를 통해서 존중의 표현을 연습하고 Active listening 을 통해 공감과 이해가 깊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

아동들은 아직 내 생각과 감정을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에 서투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의 기술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더 능숙해 지게 되고, 중요한 사회 기술 (social skills)의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아동의 대화법 및 사회기술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부모님 자신의 대화법도 많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예상 질문 및 답변

나도 답을 모르는 질문을 아이가 하면 어떻게 하죠?

"엄마/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고 다음에 얘기 해줘도 될까?"

혹은 주제에 따라서 "우리 함께 답을 알아볼까?" 라고 이야기 하고, 함께 알아보세요.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성경이나 신학에 관련된 질문이라면,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이끌어 주셔도 됩니다.

아이가 주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해요.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 주세요. 지금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내 마음속에 신경쓰이는 주제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먼저 얘기를 들어봐주고 공감해 준 후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이 얘기를 해볼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주제로 틀어주세요.

만약 일부러 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면 "엄마/아빠는 OO와 재미있게 대화하고 싶은데 자꾸 OO가 다른 얘기를 해서 슬프네." 라고 엄마 아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느낄 감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도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은 "효과적인 양질의 대화"이지 대화 가이드 사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주제가 달라지지만 계속해서 대화가 의미있게 이어진다면 유연하게 그 방향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셔도 완전히 OK 입니다.

예상 질문 및 답변

할 얘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가족 대화 가이드를 사용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가이드를 한 번 훑어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사용하시길 권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떠한 연관되는 경험이나 감정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애가 하기 싫대요.

만약 대화 자체를 아동이 거부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대화라는 것 자체에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무언가를 편하게 얘기했을 때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먼저 vulnerability(취약한 부분/보통 우리가 감추고 있는 부분)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의 약점, 실수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먼저 엄마/아빠가 얘기를 해서 나눠주면 아이들은 "어? 어른들도 실수를 하네." 하면서 좀 더 편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 대화 가이드의 질문들은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들이 아니라 가족 개개인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 최대한 편한 환경을 만들고, 진솔한 대화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혹은 한번 아이가 가족과 대화를 해봤는데 지루했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활동성 높은 남자 아이들의 경우,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가이드를 함께 보면서 가족이 집중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그런 형식이 나의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다면 엄마/아빠가 미리 질문을 숙지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상황에서 그 질문을 사용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 여행하면서 차 안에서, 같이 공원에서 걸으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짓는 활동을 같이 하면서)

우리 가족 대화 가이드 사용하기

1

준비하기

가이드를 미리 읽고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2

환경 만들기

편안하고 안전한 대화 환경을 조성하세요.

3

경청하기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4

유연하게 대응하기

상황에 맞게 대화 방식을 조절하세요.

이 가이드를 통해 우리 가족의 대화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부모 자녀 대화 TIPS

‘누군가 진정으로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부신 치료효과를 낸다’ -Scott Peck

적극적 (반영적) 경청 (Active Listening)

✓ 가치 판단 없이 들어주며, 자녀가 말한 것은 물론 말
하지 않은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음을 아이에게
전달

→ **유의할 점**: 자녀의 감정을 부인하지 말고, 성급한 판
단이나 해결책을 주는 대신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이
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

**적극적
반영적 경청**

자녀가 감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파악하여 말로 표현해 주기

1) 자녀의 문제를 관심 갖고 들어주기
(눈맞추기, 몸 기울이기 등의 표현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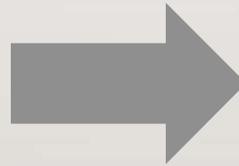
2) 자녀의 문제를 다시 간단히 정리해 주기

3) 자녀의 감정을 읽고 표현해 주기

나 - 전달법 :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의 대처기술

너-전달법이란 "빨리 방 치워라!", "컴퓨터 꺼!", "너는 왜 그러냐?" 등과 같은 말로, 상대방이 주어가 되는 대화법이다.

너-전달법은 부모의
강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자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자녀를 주눅 들게 한다.



부모가 자녀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부모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
녀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나-전달법이 바람직하다.

- (1) 부모에게 괴로움을 주는 아동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 (비난하지 않기)
- (2)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
- (3) 아동이 한 행동으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서술

나 - 전달법 :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의 대처기술

예시

퇴근해 피곤한 아버지에게 아이가 놀아달라고 떼를 쓸 때,
“(너) 저리 가!”, “(너는) 아빠 좀 그만 괴롭혀라!”

너 -
전달법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고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버지를 괴롭힌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여긴다.

퇴근해 피곤한 아버지에게 아이가 놀아달라고 떼를 쓸 때,
“지금 아빠가 너무 피곤해 놀아 줄 수가 없구나”

나 -
전달법

아이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금 피곤해서 놀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려움, 상처, 실패를 자녀들과 공유하여, 우리 모두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규범을 따르려고 노력함에도)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나 실수를 저질렀고, 유혹을 받았거나 심지어 그 유혹에 굴복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경우, 우리는 자녀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동료ja 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우리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동료입니다."

-ED STEZTE-
휘튼대학 학장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 21:15)

